

소비자 벌꿀 구매, 대형마트와 직거래 가장 선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양봉협회는 '꿀벌산업의 발전방안' 이란 연구자료에서 소비자 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실시했다. 협회에서는 양봉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설문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와 학력, 소득, 거주지 분포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벌꿀 구입횟수는 연 평균 1.89 회로 일 년에 2회 미만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80% 정도이며, 1회 구입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구입량은 1회 평균 1.965ℓ 이며 지출비용은 총 응답자 470명의 지출비용을 평균화한 결과 1회 4만 6천72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구입량으로 환산한 ℓ 당 지출비용 평균은 28,150원으로 분석되었다.

벌꿀의 용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당분이 필요한 음료나 요리에 첨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가 41%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으로 직접 섭취한다는 의견도 38%였다.

소비자들의 벌꿀 구매 선택의 요인으로는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등의 원산지(28%), 아카시아 꿀인지 잡화꿀인지 등의 밀원(20%), 브랜드 및 전문판매점의 인지도(20%), 안전성(14%), 맛(10%), 가격(6%) 순으로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벌꿀을 구입하고서 외국산이나 가짜 벌꿀인지에 대해서 의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8%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평년과 비교하여 향후 벌꿀 소비 의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386명(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늘리겠다는 답변이 75명(15%), 줄이겠다는 답변이 27명(5%)로 줄이겠다는 의견보다는 늘리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벌꿀 소비량을 늘리겠다는 이유는 '건강식 증가(설탕 대응)에 따른 소비증가'가 96%였고, 줄이겠다는 이유도 역시 '건강을 위해 당분섭취를 감소시켜서'라는 답변으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따라 벌꿀의 소비 증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관련 단체의 벌꿀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 소비자는 6%에 지나지 않았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소비자도 38%로 나타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양봉협회나 조합 등 양봉관련단체에서 천연꿀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 가격이나 품질을 믿을 수 있어 구입 요리 첨가 및 건강식품으로 섭취 ”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를 여러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현재 벌꿀의 소비자 가격은 구입경로나 벌꿀의 종류, 브랜드, 포장용기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산 아카시아 꿀의 경우 2008년 9월 현재 2.4kg들이 병으로 약 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산 잡화꿀의 경우 2.4kg들이 병으로 4만4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조사되었다.

벌꿀의 종류에 따른 가격에 대해서는 토종꿀의 경우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78%로 대부분이고, ‘매우 비싸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 아카시아 꿀의 경우 ‘적당하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고, 잡화꿀은 38%는 ‘비싸다’는 의견과 37%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토종꿀은 11만8천원 수준이었고, 아카시아꿀은 3만1천원, 밤꿀은 3만원, 잡화꿀은 2만2천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꿀의 선호도 순위는 토종꿀,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순이며, 선호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설문결과에 의하면 양봉산물 생산자와 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벌꿀은 직접 섭취하는 식품이기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국내산 벌꿀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설탕과 혼합된 벌꿀을 천연꿀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벌꿀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의 비양심적인 벌꿀 생산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국내산 벌꿀과 수입벌꿀, 가짜벌꿀

과 천연벌꿀의 구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일관된 품질 인증제도와 통일된 인증마크의 도입을 통해 확실하게 품질이 보증된 벌꿀에 대해서는 유통경로표시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강화다.

한편 양심적으로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용기에 표시하고 아울러 생산자 실명제, 생산지(밀원), 벌꿀의 종류, 채취한 날짜, 유통기한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성분표시, 당도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표기할 것도 제안되었다. 또한 벌꿀에 설탕을 혼합한 것이라면 정확한 함유량을 표시하는 방안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유통경로를 합리화시켜 유통비용을 줄이면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으며 투명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가격정찰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품질이 인증된 천연꿀에 대한 판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직판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의견과 품질만 정확하게 보증이 된다면 비싸도 건강에 좋기 때문에 구매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용기의 편의성 제고와 포장단위의 소량화 등의 제안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주전자 모형 등이나 손잡이 있는 병 모양으로 따르기 쉬운 용기의 연구 개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벌꿀을 개봉한 후 장시간 보관하게 되면 생기는 침전물과 관련하여 그것이 자칫 설탕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이 가짜꿀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천연꿀에서도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와 가짜꿀 구분법, 벌꿀의 효능, 품질인증제, 벌꿀을 이용한 요리법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양봉**